

원주민 승자의 시각, 원주민 패자의 침묵

[서평] 미겔 레온 포르티야, 고희선 옮김(2015),
『정복당한 자의 시선: 원주민의 관점에서 본 스페인의 아스테카
정복』, 문학과 지성사, 349쪽.

박 병 규*

아스테카가 멸망하기 전에 하늘에서는 혜성이 출몰하고, 마른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 신전이 불타는 등 불길한 징조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십중팔구 이 책 『정복당한 자의 시선』(Visión de los vencidos)을 읽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얼핏 귀로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이 책을 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고전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마치 상식이라도 되는 양, 모두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일상 담론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

1959년 문고판 형태로 세상에 첫 선을 보인 『정복당한 자의 시선』은, 20세기 후반 멕시코에서 출간된 인류학 서적 가운데 최고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이다. 2007년 증보판이 나올 때까지 28쇄를 인쇄하였으며, 2009년에는 출간 50주년을 맞이하여 성대한 기념행사가 열리기도 하였다.

국제적으로도 이 책의 명성은 드높아가기만 한다. 1962년 『부러진 화살』(The Broken Spears)이라는 제목으로 영역본이 출간된 이래 독일어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

(1962), 프랑스어(1965), 폴란드어(1967), 일본어(1993) 등 동서양의 여러 언어로 속속 번역되었다. 2015년 국역본 출간에 이어, 2016년에는 중국 어본이 나올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비서구권 인문학 서적이 이처럼 세계적인 호응을 받는 경우는 결코 흔치 않은 일이다.

저자 미겔 레온 포르티야는 1926년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난 인류학자이자 역사학자이다. 1944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로스앤젤레스의 로욜라대학교에서 다시 학부와 석사를 끝내고, 다시 멕시코로 돌아와 멕시코국립대학교에서 앙헬 마리아 가리바이의 지도 아래 1956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박사학위논문인 『나우아인의 철학』(1956), 『정복당한 자의 시선』(1959), 『연대기와 노래를 통해서 본 고대 메시카인』(1961), 『정복의 이면』(1964), 『아스테카 세계의 시인 13명』(1967) 등이 있다.

레온 포르티야가 『정복당한 자의 시선』을 출판하던 무렵 멕시코에서는 아스테카를 비롯하여 스페인 정복 이전의 원주민문명을 연구하는 인류학과 역사학이 학문적으로나 대중적으로 인기 절정이었다. 1910년의 멕시코혁명 이후 국민통합 담론으로 혼혈(메스티소)문화론을 제시한 멕시코 정부는 정복 이전의 원주민문명을 멕시코 역사로 편입하려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국립역사·인류학연구소와 국립역사·인류학대학을 설립하여 원주민문명의 유적과 유산의 발굴, 조사, 연구를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멕시코혁명운동과 국립인류학박물관 신축을 통해서 대중화에도 앞장섰다. 멕시코 국민도 스스로를 스페인 혈통과 원주민 혈통이 뒤섞인 혼혈로 인식하고(또는 교육받고), 지금까지 무시하고 외면해온 정복 이전의 원주민문명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레온 포르티야의 『정복당한 자의 시선』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학문적 연구와 대중적 관심의 사이를 괴리를 메워준 교량 같은 서적이었다.

그러나 『정복당한 자의 시선』은 이른바 ‘말랑말랑한’ 인문학 서적과 성격이 다른 책이다. 내용은 스페인의 아스테카¹⁾ 정복과 관련한 기록의

나열이므로 어렵지 않은데, 정복 전후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읽어나가기 힘들다. 이런 점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멕시코를 제외한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동일한 스페인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멕시코의 고대사까지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예외는 미국인데, 히스패닉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멕시코계이기 때문에 이 책은 꾸준히 판을 거듭했고, 2007년 증보판이 나오자마자 즉시 새 번역본이 출판되었다.

레온 포르티야도 이런 어려움을 의식한 듯, 책 말미에 해설을 덧붙여 멕시코의 고대 원주민문명을 개괄하고 있다. 이 해설에서 자신의 대표적인 학술서 『나우아인의 철학』 핵심 명제인 ‘신비적·무사적 세계관’을 슬쩍 언급하고(317쪽) 아스테카의 기틀을 잡은 인물로 틀라카엘렐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나(312쪽 이하) 전반적으로는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아무튼 『정복당한 자의 시선』은 여러 문헌에서 발췌한 글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술이라기보다는 편역서이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하면, 1519년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멕시코에 상륙했을 때부터 1521년 아스테카가 멸망할 때까지 3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문헌을 연대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사실, 스페인의 아스테카 정복에 관한 문헌은 상당히 많다. 우선 정복자 코르테스가 당시 스페인의 왕이자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인 카알 5세에게 5차례에 걸쳐 보낸 장문의 『보고서』를 비롯하여²⁾ 코르테스 부하로 정복 전쟁에 참여한 베르날 디아스 델 카스티요가 저술한 『누에바 에스파냐 정복의 진실한 이야기』, 디에고 두란의 『누에바 에스파냐 인디아스

1) 레온 포르티야가 사용하는 메시카가 정확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일반적인 용법에 따라서 아스테카 또는 테노치티틀란 사람이라고 칭한다.

2) 이 책은 우리말로 번역되었다. 에르난 코르테스, 앙헬 고메스 저, 김원중 옮김 (2009), 『코르테스의 멕시코제국 정복기』, 나남.

의 역사』 등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16세기 스페인 역사가들이 정복을 다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헌 자료에 근거하여 19세기부터 아스테카 정복사가 쓰여졌다.

그러나 ‘정복당한 자의 시선’이라는 제목이 암시하고 있듯이 미겔 레온 포르티야는 관심의 초점을 스페인 정복자에게서 원주민 피정복자에게로 옮기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한다.

신대륙 사람들, 특히 중미 사람들은 …… 발견자와 정복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외지인들에 대해 그들이 처음으로 취한 태도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정복 전쟁에 과연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어떻게 평가했을까?(11쪽)

이에 대답하는 방식은 역사 뒤집어보기에서 미시사까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레온 포르티야가 취한 방식은 조금 독특하다. 16세기 아스테카 원주민어(나우아틀어)로 작성한 문헌이나 스페인어 문헌을 일반인이 읽기 쉽게 현대 스페인어로 옮겨 연대순으로 제시한 것이 전부이다. 출처 문헌에 대한 소개는 있지만 그 어떤 사료 비판이나 논평도 없다.

책 속으로 들어가면 『정복당한 자의 시선』은 서문과 해설을 제외하고 모두 17장으로 구성되었다. 원래는 15장이었는데, 근 50년이 지난 2007년에 16장과 17장을 덧붙여 증보판이 나왔다. 장을 하나하나 소개하면 글이 지루해지므로 여기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필요한 역사적 맥락을 보충하고, 현대의 연구를 참조하여 간단한 평을 곁들이도록 한다.

제1장에서 미겔 레온 포르티야는 아스테카 멸망 직전에 나타난 8가지 초자연적인 징조를 소개한다. 그 징조를 현대의 용어로 옮겨보면 혜성의 출몰, 원인 모를 신전 화재, 마른하늘의 날벼락, 대낮의 운석 낙하, 호수의 지진해일, 한밤중 여인의 비명, 머리에 거울 단 새의 출현, 머리가 들

달린 괴인 출현이다. 호수의 지진해일은, 아스테카 사람들이 살던 테노치티틀란(현재의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 부근)이 당시에는 호수 가운데 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이다.

이런 비합리적인 일을 사실이라고 믿는 현대인은 없을 것이다. 문헌을 살펴봐도 이런 이야기는 아스테카가 멸망하고 30년이 지난 1550년대에 처음 등장할 뿐, 그 이전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는가? 아스테카 사람을 적대시하고 스페인 정복자 코르테스 편을 들었던 원주민들이다. 아스테카의 멸망은 하늘이 정해놓은 운명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사후 합리화이고 자기변명이다.

제2장부터 4장까지는 코르테스 일행이 베라크루스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스테카 목테수마 왕의 대비책과 심리에 관한 글이다. 코르테스는 1519년 4월 21일 약 400명의 스페인 정복자를 이끌고 베라크루스에 상륙했다. 이런 소식을 보고받은 목테수마 왕은 코르테스가 케찰코아틀 신이라고 생각했다(67쪽). 그리고 갖가지 선물을 마련하여 코르테스에게 보냈는데, 코르테스 일행은 대포를 쏘서 사절단을 기절시켜버렸다(75쪽). 이 보고를 받은 목테수마는 사제(아스테카에서는 주술사이자 학자였다)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도망갈 궁리를 한다(87쪽).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런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전 길레스피, 제임스 록하트, 매튜 리스톨 등 1990년대 이후에 연구서를 출간한 학자들은 당시의 문헌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케찰코아틀 신의 귀환은 정복 이후에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결론짓는다. 매튜 리스톨의 『스페인 정복의 7가지 신화』(2001)에 따르면, 1525년대 프란치스코회 수사들이 선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정복자 코르테스를 케찰코아틀로 신격화하였고, 이런 이야기가 1530년에 널리 유포되었다.

목테수마 왕이 도망갈 궁리를 하였다는 얘기도 아스테카가 전쟁을 통해서 제국으로 성장했으며, 왕 자신도 결코 나약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사제 중심의 화전파와 전사 중심의 주전파의 갈등이 있었고, 목테수마 왕이 중도적 입장을 취했다는 엔리케 두셀의 해석이 더 현실적이다.

제5장은 코르테스 일행이 테노츠티틀란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스테카와 적대관계인 틀라스칼라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인근의 출몰라를 괴멸시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잠시 이 사건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기로 한다. 스페인 정복 이전의 멕시코 땅에는 반경 10km 남짓한 규모의 수많은 도시국가가 있었다. 이러한 도시국가 중에서 현재의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테노츠티틀란, 테스코코, 틀라코판 3개 도시국가가 연합을 맺고 차츰 나머지 도시국가를 정복함으로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스테카 제국이 형성되었다. 아스테카가 수차례 전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틀라스칼라였다. 이처럼 아스테카와 양속관계이던 틀라스칼라는 코르테스와 곧바로 손을 잡고 3, 4천명의 원군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테노츠티틀란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던 출몰라에서 잔인한 학살극을 벌였다.

5장에서 레온 포르티야는 출몰라 학살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하나는 틀라스칼라 사람들이 코르테스 일행을 사주하여 벌인 일이라는 이야기이고(93쪽), 다른 하나는 출몰라 사람들이 틀라스칼라에서 보낸 사신을 죽여서 어쩔 수 없이 벌인 일이라는 이야기이다(102쪽). 여기서 레온 포르티야는 처음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신 살해 보복설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이다(90쪽). 그러나 이 이야기의 저자에 대한 언급은 삼가고 있다.

사신 살해 보복설의 출처는 『틀라스칼라의 역사』이며, 저자는 디에고 무뇨스(1529~1599)이다. 이름으로 보면 스페인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스페인인 아버지와 틀라스칼라 귀족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었다. 이런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자기 종족의 영광된 과거를

기술할 때 펜이 어떤 쪽으로 기울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온 포르티야는 이런 사실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재의 멕시코에서 보면, 아스테카 사람이건 그에 대항하던 트라스칼라 사람이건 모두 원주민 조상이라는 하나의 테두리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혼혈인 디에고 무뇨스를 원주민으로 볼 수 있으며, 정복에 대한 그의 시각이 원주민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디에고 무뇨스의 텍스트를 들여다보자.

이 모든 일[출몰라 학살]은 하늘의 명에 따른 것이었고,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구원하고, 악마[아스테카]의 권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원한 것이다.(100쪽)

이처럼 디에고 무뇨스는 이미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단순히 신앙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다음 구절에서 보듯이 이민족을 적대시하는 스페인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도 답습했다.

트라스칼라 사람들은 전투가 극에 달하고 살육이 진행되자 산티아고 성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산티아고를 외쳤으며, 그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트라스칼라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산티아고의 이름을 외친다고 한다.(104~105쪽)³⁾

산티아고가 누구인가?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꿈꾸던 스페인 순례길의 마지막 종착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의 주인공이다. 요즘은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말안장에 앉은 채로 칼을 휘두르는 산티아고 성자상의 하단을 꽃으로 가려놓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말발굽 아래에

3) 이하 인용문에서 나우아틀어 고유명 표기는 국역본과 차이가 있다.

는 무어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다. 이처럼 산티아고는 스페인 사람들이 이베리아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낼 때 전쟁터에서 ‘돌격’처럼 외치던 대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이며, 이에 걸맞게 별명 또한 ‘무어인 살상자’(마타모로스)였다. 이런 산티아고 이름을 부르며 출몰라 사람들과 싸우고, 나중에는 테노초티틀란 사람들과 싸웠다고 자랑스럽게 기술한 문헌이 과연 ‘원주민의 관점에서 본 스페인의 아스테카 정복’인지 의심스럽다고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디에고 무뇨스에만 그치지 않는다. 레온 포르티야가 8장, 10장, 13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알바 익스틀릴소치틀(1568~1648) 역시 코르테스 편에 가담하여 아스테카 멸망에 일조한 테스코코의 왕가 출신 어머니와 스페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며, 가문의 영광을 위해 사실을 과장했다고 비판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피렌체 사본』도 레온 포르티야는 저자를 ‘시아군의 정보제공자’라고 소개하는데, 그 이유는 원주민에게 채록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록 시기는 정복이 끝나고 스페인의 식민통치기구가 완전히 자리 잡은 16세기 후반이며, 편찬자인 프란치스코회 수사 베르나르디노 데 시아군(1499~1590)이 원고를 수정하고 정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피렌체 사본』 또한 스페인 정복자의 사고와 시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14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은 원주민의 관점이라고 부르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러한 비판은 괜한 트집 잡기가 아니다. 스페인의 아스테카 정복 전쟁에서 정복당한 자, 즉 패자는 멕시코의 모든 원주민이 아니라 11장, 12장, 13장에서 보듯이 테노초티틀란에 살던 아스테카 사람들뿐이었다. 틀라스칼라 사람들도, 테스코코 사람들도 이 정복 전쟁에서는 승자였다. 따라서 『정복당한 자의 시선』은 패자가 기술한 역사도 아니며, 패자의 시각에서 쓴 역사도 아니다.

이쯤에서 다시 정복의 역사를 따라가기로 한다. 코르테스 일행은 1519년 11월 8일 테노츠티틀란에 입성했다. 8장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이때 목테수마 왕은 친히 행차하여 코르테스 일행을 영접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귀하신 분이여. 당신께서는 지금 피곤하고 지쳐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신의 도시인 메시카인의 테노츠티틀란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당신의 자리, 당신의 왕좌에 앉기 위해 오셨습니다.(128쪽)

이 구절이 바로 목테수마 왕이 자진에서 코르테스에게 양위하려 했다는 속설의 전거이다. 출처는 정복 50년이 지난 뒤에 채록한 『피렌체 사본』이다. 아스테카에 문자는 있었지만 그림문자여서 일상의 말을 기록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왕은 면전에서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귀족이라도 신발을 벗어야 하는 지고한 존재였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누가 이런 기억을 전한다는 말인가? 현대 학자들은 이 구절의 신빙성을 의심한다. 기록을 존중한다고 할지라도 수전 길레스피 같은 학자는 이 말이 의례적인 인사말이라고 해석한다.

테노츠티틀란에 입성한 코르테스 일행은 목테수마 왕으로부터 귀빈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예상보다 장기간 체류하자 아스테카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바로 그 무렵, 쿠바 총독이 코르테스를 체포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쿠바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코르테스는 상관인 자기의 허락도 없이 군대(비유적인 표현일 뿐, 사실은 정복자 무리이다)를 이끌고 관할지를 이탈한 반란군 수괴였던 것이다. 코르테스는 부하 알바라도에게 테노치티틀란을 맡기고 쿠바 총독이 파견한 스페인군과 싸우러 나갔다.

이렇게 테노츠티틀란에 남게 된 알바라도는 1520년 5월 20일 경에 열

린 토스카틀 축제장에 난입하여 아스테카 고위층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다(제9장). 이런 만행을 목격한 테노츠티틀란 사람들이 봉기했다. 1520년 6월 24일 코르테스가 급히 돌아왔을 때는 이미 건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고 있었다. 코르테스는 목테수마 왕에게 성난 군중을 진정시키라고 주문하는 한편, 몰래 궁궐을 빠져나갔다. 목테수마 왕은 이런 혼란 속에서 의문을 죽음을 당하고, 아스테카 사람들은 도망가는 코르테스 일행을 닥치는 대로 살상했다. 1520년 6월 30일 밤에 벌어진 일이었다(제10장).

아스테카에서는 곧 후임 왕을 선출했으나 1519년에 유행하던 천연두로 몇 달 만에 죽고, 쿠아우테목이 왕위를 계승하여 반코르테스 전선을 구축하였다.

한편, 간신히 트라스칼라로 피신한 코르테스 일행은 아스테카에 시달리던 원주민 세력을 설득하여 반아스테카 동맹군을 결집시키고, 테스코코에서 호수를 건널 때 사용할 소형 전함을 건조하였다. 이렇게 전열을 정비한 코르테스는 반아스테카 원주민 동맹군을 앞세워 1521년 5월 테노츠티틀란 공격에 나섰다(11장, 12장, 13장). 정복은 쉽지 않았다. 약 75일 동안 테노츠티틀란을 포위한 끝에 쿠아우테목 왕을 사로잡고, 1521년 8월 13일 마지막 저항하던 트라텔롤코를 무너뜨림으로써 아스테카도 종말을 맞았다. 코르테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기간에 스페인인과 원주민 동맹군 측에서는 23만 명이 전사했고, 테노츠티틀란 측에서는 약 24만 명이 전사했다.

제14장에서는 정복 초기에 트라텔롤코 사람이 쓴 연감이 실려 있는데,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모두가 전투에 여념이 없는 동안 그 어디에서도 테노츠티틀란 사람들은 볼 수 없었다. …… 실지로 전쟁을 수행한 것은 단지 우리 민족 트라텔롤코 사람들뿐이었다.(226쪽)

역사를 보면, 트라텔롤코는 아스테카인이 테노츠티틀란에 정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는 1338년 일부 사람들이 지척에 있던 조그만 섬으로 건너가 건설한 도시국가였다. 그 후 135년이 지난 1473년 테노츠티틀란 사람들이 이 섬을 점령하고 호수를 메워 하나로 통합했다. 우리식으로 비유하자면 같은 성씨이지만 본관이 다른 사람들이 한 동네에 살았던 것인데, 우환이 닥치자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갔다고 비난한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도 테노츠티틀란 사람들은 패자 중의 패자가 되어 영원한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2007년 증보판에서 삽입된 제16장은 정복 이후 원주민이 남긴 비통하고 애절한 시가이며, 제17장은 한때는 승자였으나 식민시대가 시작되면서 모두 패자로 전락한 원주민의 하소연, 1910년 멕시코혁명에 참여한 에밀리아노 사파타의 1918년 선언문, 현대 원주민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미겔 레온 포르티야는 이 책의 해설 말미에서 역사적 가치 못지않게 문학적 가치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책이 대중적일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서두의 8가지 징조에서 마지막 “길거리에 널린 부러진 화살”으로 끝나기까지 책 전반을 관통하는 정서, 즉 역사에서 패자라는 수명을 떠안은 원주민에 대한 낭만주의적 애상에 있었다. 그러나 이런 낭만주의적 접근은 현재를 살고 있는 원주민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1960년대부터 멕시코 인류학계에서 제기되었다.

또 콜럼버스의 신대륙 도착 500주년(1992년) 기념행사 멕시코측 준비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레온 포르티야는 원주민과 스페인이라는 ‘두 세계의 만남’을 기념행사 문구를 제안하였다가 멕시코 역사학자 에드문도 오고르만과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원주민 단체로부터 침략의 역사를 호도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도 ‘두 세계의 만남’이라는(35쪽)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레온 포르티야는 스페인과 원주민 사이의 혼혈에서 현재의 멕시코인이 탄생했다는 메스티소 민족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저런 일을 고려할 때, 식민시대로부터 현재의 원주민까지 언급하고 있는 제17장은, 그간의 비판에 대해 자신은 원주민을 망각하거나 외면한 적이 없다는 레온 포르티야의 반론으로 읽힌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책은 출판된 지 오래되어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럼으로써 아쉽게도 현재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는 스페인의 아스테카 정복에 대한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낸 원천이 되었다. 이런 흠결에도 불구하고 출판 당시인 1959년으로 돌아가 보면, 『정복당한 자의 시선』은 아스테카 정복에 대해 또 다른 시각이 있음을 일깨워준 획기적인 저서였다. 그리고 500년 전 아스테카 정복 시기를 살던 사람들의 사고와 호흡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이 책만이 지니고 있는 문학적 매력이자 장점이다.